

학령전 아동의 마음의 이론과 양육 방식과의 관련성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heory-of-Mind and Parenting Style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배기조
교수 최보가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Lecturer : Bae, Ki Jo

Professor : Choi, Bo Ga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heory of mind and parenting style. The mothers of 66 3- and 4-year-olds were given questionnaires eliciting information about parenting style, SES, number of younger and older siblings, the time child spends with mother. Three variabl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ory of mind: age, number of older siblings, and affective parenting style. The time spent with mother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ory of mind. Factors most strongly affecting theory of mind were child's age and mother's affective parenting style.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recent research showing that parenting style may be important for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I. 서론

우리가 사회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나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 필수적인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에는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실제의 생각이나 감

정과 다를 수 있음을 아는 것, 상상 속의 사건이나 사물을 실제하는 사물과 구분하는 것, 우연적 행동과 의도적 행동을 구별하는 것 등 다양한 능력이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발달심리학자들은 학령전 아동들은 다양한 정신현상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발달 연구자들은 '마음의

이론(theory of mind)'을 연구하면서 학령전 아동도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음을 밝혔다(Astington & Gopnik, 1991; Leekam, 1993; 이동화, 1994; 이미영, 1995; 이수미, 1997).

이러한 마음의 이론이 오늘날 사회인지 분야의 핵심주제로 연구되고 있는데, 사회인지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Shantz, 1983). 첫째 초기 삐아제 이론 연구로 지금까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이론이다. 삐아제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가장 핵심 주제는 아동의 자아중심성(egocentrism)이다. 그리고 조망수용(perspective-taking), 불활론(animism), 실재론(realism)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두 번째는 사회심리학자들의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 연구이다. 이 분야에서는 주로 사람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의 원인에 대해 어떤 추론을 하는지 연구하였다. 세번째 흐름은 단일 이론을 부여하지 못한 채 상위인지(metacognition) 발달과 마음의 이론(theory of mind)에 관한 연구로 설명이 되었다. Premack과 Woodruff(1978)가 침팬지를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처음 '마음의 이론(theory of mind)'이란 용어를 사용한 바 있으나 Shantz(1983)가 사회인지 발달의 주류를 정리할 때까지만 해도 마음의 이론이 완전히 제자리를 잡지 못하였는데, 그 후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사회인지 발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마음의 이론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아동이 외부의 물리적 자극사상과 정신적 현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Estes, Wellman, & Woolley, 1989; Hadwin & Perner, 1991; Lillard & Flavell, 1990). 그 결과 학령전 아동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마음의 이론이 발달하는 분수령은 학자에 따라 약간의 견해차가 있지만 주로 3, 4세즈음이라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학령전 아동의 마음의 이론에 대한 20여년의 연구를 토대로 최근에는 아동의 정신적 상태 인식과 사회적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 그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마음의 이론 발달과 아동이 경험하는 가족환경 및 그 환경내의

부모의 양육방식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간이 무기력한 상태로 태어나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시간 동안 가족내에서 보살핌을 받게 되므로 아동의 인지에 관한 연구라 하더라도 가족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듯 가족내에서의 경험은 아동이 감정을 조정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학습하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 된다(Astington & Gopnik, 1991; Cummings & Davies, 1994; Dunn, 1995).

아동은 가족성원들 특히 부모의 정서적 교류에 대해 민감한 관찰자이므로(Dunn & Munn, 1985) 가족이 어떤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가 아동의 정서와 사고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사회인지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Dunn 등(1991)은 감정에 대한 가족의 대화가 아동의 정서 인식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Dunn, Brown, & Beardsall, 1991), 감정에 대해 격의없이 대화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동은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Dunn, Brown, Słomkowski, Tesla, & Youngblade, 1991). 아동의 사회적 이해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동에게 어떻게 의사소통하느냐에 따라서 향상 혹은 손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하게 하는 부모의 양육과 아동의 마음의 이해 능력은 관련이 있다(Ruffman, Perner, & Parkin, 1999). 이렇듯 각기 다른 가족관계 내력을 가진 아동들은 상이한 정서를 경험하고, 사회적 상황이나 타인의 감정에 대해 달리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Nixon, 1997).

또한 어머니-자녀간의 관계 및 애착의 질과 마음의 이론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애착이론은 마음의 이론 연구자에게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해왔는데,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애착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동은 이야기의 등장인물의 욕구나 신념을 고려할 것을 요하는 과제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어머니와의 애착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Fonagy, Redfern, & Charman, 1997). 또한 11개월

혹은 13개월 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49개월이 되었을 때 신념을 더 잘 이해하였고, 61개월이 되었을 때 또다른 마음의 이론 검사에서 수행이 향상되었다(Meins, Fernyhough, Russel, & Clark-Carter, 1998).

부모가 아동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양육하는가 또한 중요한데,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은 실제와 다른 신념(false belief)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음의 이론 검사에서 낮은 수행과 관련이 있다(Vinden, 1997).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애정뿐 아니라 통제도 어린 아동이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부모의 양육 책략에서의 차이가 실제와 다른 신념 과제에서 아동의 수행 차이와 실제로 관련이 있었다(Ruffman, 1997). 그러나 양육 방식과 아동의 마음의 이해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게다가, 양육 방식과 마음에 대한 이해 발달은 문화에 따라 다른 경향(Vinden, 1997)이 있으므로 우리 문화권에서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듯 하다.

또한 양육 방식과 신념 이해 사이에 조정가능한 매개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인이 형제이다. 형제와의 상호작용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Dunn, Brown, Slomkowski, Tesla, & Youngblade, 1991; Youngblade & Dunn, 1995), 형제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은 실제와 다른 신념 과제에서 보다 성공적인 수행을 보였다(Perner, Ruffman, & Leekam, 1994; Jenkins & Astington, 1996). 또한 형제들이 서로 경험하는 상황도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따라서 형제가 있는 아동은 외동아와는 상이한 발달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형제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형제로 인해 갈등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부모가 중재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일 수 있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부모는 상대방의 입장, 감정, 생각이 어떠할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언급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 빈번히 노출된 아동은 그럴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아동에 비해 타인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내에서 어머니의 양육방식 및 형제와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마음의 이론과의 이러한 관련성은 Vygotsky(1978)의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다. 이 영역은 아동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발달 수준과 성인이나 좀 더 능력있는 또래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발달 수준의 거리를 말한다. 비고스키 학파는 인지 문제에 도움이 되는 다소 전문적 개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데, 아동은 자신의 문화에서 '보다 유능한' 사회성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상이다. Vygotsky는 '보다 유능한' 사회성원으로 또래의 역할을 언급하지만, 부모 특히 시간적·정서적 접촉이 잦은 '어머니'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적절한 반응이 자녀로 하여금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생각해 보도록 도와줄 것이다. 형제 중에서도 순위 형제가 아동의 신념 이해를 촉진시킨다는 연구(Ruffman, Perner, Naito, Parkin, & Clements, 1998; Ruffman, Perner, & Parkin, 1999)도 이러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이 처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양육 실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다. 송인섭(1982)은 아버지의 직업, 부모의 교육수준, 교육적 진보를 위한 경제적 여유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보았다. 중산층 부모들이 빈곤한 가족의 부모들보다 양육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보내는 질적, 양적 시간도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예컨대 Cole과 Mitchell(1998)은 마음에 대한 이론의 예측인자로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고하였다. 홀부모와 재정적 빈곤은 아동의 실제와 다른 신념(false belief)을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마음의 이해 능력 수준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마음의 이해 능력이 차이가 있는지 봄으로써 그 발달적 경향을 확인하고, 아동의 마음의 이론 발달과 부모의 양육을 포함한 가정환경 관련 변인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에 비추어 본 연구의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마음의 이해 능력이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마음의 이론과 양육을 포함한 가정 환경 관련 변인은 관련성이 있는가?

셋째, 아동의 연령 및 양육을 포함한 가정환경 관련 변인 중 어느 변인 순서로 마음의 이론을 각각 설명할 수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 4세에 해당되는 아동으로 대구시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또한 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질문하였다. 아동의 연령은 '마음의 이론'이 발달한다는 3, 4세로 제한하였다. 검사일을 기준으로 3세 아동의 연령범위는 3년-3년 11개월이었고, 평균연령은 3년 4개월이었다. 4세 아동의 연령범위는 4년-4년 11개월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년 4개월이었다. 3세 아동 36명, 4세 아동 30명으로 전체 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 도구

1) 아동의 실재와 다른 신념 과제(false belief task)

속입수 과제(deception task)를 통해 아동의 실재와 다른 신념을 알아보는 실험으로 도구는 Woolley (1995)의 과제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아동, 실험자와 다른 성인 보조 실험자가 함께 과자통을 보았다. '이 통안에 과자가 들어 있어' 보조 실험자는 과자를 먹기 전에 목이 말라서 물마시고 오겠다고 실험실을 나간다. 실험자는 아동에게 '우리 저 선생님 몰래 이 과자를 숨겨버리고, 이 통에 (학습용) 풀을 집어넣어서 골려줄까, 재미

있겠지' 라고 하며 물건을 바꾼 후, 아동에게 검사 질문('저 선생님이 들어오면, 이 속에 무엇이 들어 있다고 생각할까?')과 통제질문('이 속에 진짜로 뭐가 들어 있니?')을 물었다." 정반응을 보이면 1점, 오반응을 보이면 0점을 주었다.

또한 아동의 실재와 다른 신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과제(일명 Smarties 과제: Perner, Leekam, & Wimmer, 1987; Maxi 과제: Wimmer & Perner, 1983)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적합하게 에피소드를 구성하였다. Smarties 과제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아동에게 사탕통을 제시하여 이 속에 뭐가 들어 있을지 묻는다. 그런 후 실험자와 아동은 사탕통을 열고 내용물을 확인한다. 내용물은 전혀 예기치 못한 '레고 블럭'이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려준 후 아동에게 검사질문 1('네가 처음에 이 상자를 봤을 때, 너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었지?')과 검사질문 2('몰마시러 나간 선생님을 언급하면서, 그 선생님은 이 속에 뭐가 들어 있다고 생각할까?')를 묻은 후, 통제 질문('이 속에 진짜로 뭐가 들어 있니?')을 물어으로써 아동이 이 시나리오를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Maxi 과제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민수(인형)를 아동에게 소개하며, 민수는 딸기가 식탁위에 있는 것을 보았어. 그런 후 민수는 놀이터에 놀러 간다. 그 사이 엄마가 딸기를 방으로 가져갔어. 민수가 돌아왔다." 여기까지 인형과 적절한 그림을 제시하며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후 검사질문 1('민수는 딸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과 검사질문 2('민수가 돌아와서, 딸기를 어디서 찾으려 할까?')를 물었다.

3) 어머니용 질문지

설문 내용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원수, 형제수(손위 형제수와 손아래 형제수), 자녀와 보내는 시간 수, 양육 방식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월수입으로 정의하여, 그 조작적 정의는 부·모의 교육수준 및 부·모의 직업과 월수입을 점수화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

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 방식 척도는 송미화(1997)를 토대로 하고 강호진(1998), 천희영(1993)과 김경연(1987)의 논문에서 사용된 애정적(거부적) 방식, 허용적(통제적) 방식을 선택, 총 39 문항으로 작성하여 예비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한 후 2개 요인에 대한 24개(애정-거부, 허용-통제) 문항을 연구에 이용하였다. 애정(거부) 요인은 12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0.9%를 설명하였고, 허용(통제) 요인은 12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4.4%를 설명하였다. 이 요인들의 총 설명 변량은 35.3%이었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이며, Cronbach α 계수는 .79이었다.

3. 실험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실험은 2000년 1월 7일~1월 17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실험은 어린이집내에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방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아동편에 어머니용 질문지를 미리 보내어서 회수된 아동에 한해서 실험을 하였다. 각 아동에게 소요된 시간은 15분내였으며, 처음에 아동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하여 아동의 이름, 가족상황, 친구, 선생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아동의 긴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후에 실험에 들어갔다. 반응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말하기를 꺼리는 아동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야기 제시 순서는 속임수 과제, Smarties 과제와 Maxi 과제 순으로 하였다.

속임수 과제, Smarties 과제와 Maxi 과제는 각 질문별로 정반응을 보이면 1점, 오반응을 보이면 0점을 주었다. 속임수 과제의 검사질문은 한 개이므로 점수 범위는 0-1점이었다. Smarties 과제는 아동 자신의 신념과 타인의 신념을 묻는 두 개의 질문이 있으므로 점수 범위는 0-2점이었으며, Maxi 과제 역시 질문유형(think, look)에 따라 두 개의 질문이 주어졌으므로 점수 범위는 0-2점이 된다. 따라서 각 아동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이론 총점수 범위는 0-5점이다.

본 연구 결과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집된 자

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양육 방식 척도 구성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 α 를 구하였다.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으며, 연령에 따라 마음의 이론 이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음의 이론과 양육을 포함한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3의 마음의 이론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변인을 찾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마음의 이론과 관련 변인들간의 관련성

본 연구에 관련된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연령별 마음의 이론 점수의 차이검정을 해 본 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4.06, p<.001$)<표 2>. 아동의 마음의 이론과 가정 환경 관련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표 1>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 (N=66)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마음의 이론 점수	2.24	1.40	0	5
연령	3.89	.50	3.0	4.11
가족원수	3.94	.63	3	6
순아래형제수	.41	.41	0	1
순위형제수	.50	.50	0	1
사회경제적 지위	3.35	.90	1	5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수	6.23	1.89	2	9
애정적 양육방식	3.73	.53	2.33	5.00
통제적 양육방식	3.68	.47	2.50	5.00

<표 2> 연령별 마음의 이론 점수에 대한 t-검정 결과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t 값
3 세	36	1.67	1.04	-4.06***
4 세	30	2.93	1.48	

***p<.001

〈표 3〉 마음의 이론과 가정환경관련변인들과의 상관관계

(N=66)

	가족원수	손아래 형제수	손위 형제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수	애정적 양육방식	통제적 양육방식
마음의 이론	.087	-.140	.253*	.194	-.288*	.259*	-.208

*p<.05

〈표 4〉 마음의 이론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요 인	R	R ²	F	F유의도	B	β	T값
1 연령	.453	.205	16.49	.001	1.27	.45	4.06***
2 연령 애정적 양육방식	.56	.31	14.07	.001	1.39 .86	.50 .36	4.70*** 3.08***

***p<.001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마음의 이론은 순위 형제수($r=.253$, $p<.05$)와 애정적 양육방식($r=.259$, $p<.05$)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아동이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수($r=-.288$, $p<.05$)와는 부적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2. 마음의 이론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

연구문제 3의 마음의 이론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변인의 순서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의하면, 이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4.07$, $p<.001$). 마음의 이론을 설명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변인으로 아동의 연령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연령의 β 값은 .50($p<.001$)이었으며, 그 다음 애정적 양육방식($\beta=.36$, $p<.001$)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자신 및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연령 및 양육을 포함한 가정환경 관련 변인들간의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먼저, 아동의 연령에 따른 마음의 이해 능력을 살펴본 결과 3세 아동과 4세 아동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대해서는 마음의 이론 연구 초기부터 3,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느 시점이 마음의 이론이 발달하는 분수령이 되는지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차이를 보이는데, 3세 아동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과 4세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대별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마음의 이론과 가장 상관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마음의 이론에 대한 연령별 차이 검정 결과 3세와 4세 아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존의 4세 가능 입장(Custer, 1996; Perner, Leekam, & Wimmer, 1987; Woolley, 1995)을 지지하고 있다. 연령이 아동의 마음의 이해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발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셈이 된다.

아동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관련 변인들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마음의 이론과 순위 형제수, 애정적 양육방식이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형제와의 관련성을 보면, 형제수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연구(Jenkins & Astington, 1996; Perner, Ruffman, & Leekam, 1994)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순위 형제수와 마음의 이론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Ruffman 등(1998, 1999)과 Dunn 등(199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방식을 취할 때 아동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욱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역시 선행연구(Meins, Fernyhough, Russell, & Clark-Carter, 1998; Nixon, 1997; Ruffman, 1997)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순위 형제수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방식에 대한 결과는 Vygotsky(1978)의 근접발달 영역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비고스키 학파는 아동의 인지 문제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보다 유능한 또래나 성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있다. 순위 형제와 어머니는 아동이 일상에서 시간적, 정서적 접촉이 가장 빈번한 대상이며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 타인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부모가 통제적인 양육방식을 주로 취할 때는 아동이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결과는 말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통제적인 양육방식이 어떠한 상황에서 아동이 이해가능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다기보다 금지와 억제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마음 이해와는 거리가 있는 듯 하다. 부모가 권위주의적 책략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아동의 마음의 이론 능력과는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밝힌 Vinden(1997)의 연구를 상기해 보면, 부모가 보이는 양육태도가 결국은 아동이 자신과 타인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겠다. 달리 생각해 보면 부모가 권위주의적 혹은 통제적인 책략을 주로 취할 때 아동은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지 알아내려고 애쓸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연구대상을 통해 통제적인 양육방식과 마음의 이론에 대해 면밀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동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수와는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Lewis 등(1996)이 실재와 다른 신념의 이해는 순위의 형제, 친구, 가족들과 보낸 시간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밝힌 연구와는 대조적이다. 또한 Ruffman 등(1999)도 자녀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

내는 어머니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어머니는 대부분 전업주부였으며 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취업모는 양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질적으로 충족시키려는 의식이 더 강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과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마음의 이해 능력과의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가 보인 반응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혹시 실제보다 상승된 반응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고 마음의 이론과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수간의 부분상관계수를 봤을 때 여전히 의미있는 관계이기는 하나 그 관련성 정도가 다소 낮아졌다. 차후엔 사회경제적 지위 같은 민감한 부분은 좀 더 세심한 자료 수집이 되어야겠다.

마음의 이론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변인의 순서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령과 애정적 양육방식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상한 결과였으며, 마음의 이론 발달을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연령이 우선하고 그 다음 부모의 양육태도였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는 아동의 사회인지 발달에 후천적인 환경, 그 중에서도 아동과 밀접한 가족환경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마음의 이론과 양육 및 가정환경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것으로,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초기 연구로 앞으로의 보다 체계적인 후속 연구의 바탕 자료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대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 고려한 관련 변인들 외에도 다른 변인을 더 첨가해서 마음의 이론 능력의 설명력을 예측해 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아동의 실제 연령뿐 아니라 언어 능력에 따른 언어적 연령이나 사회적 역량 등도 고려해서 좀 더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마음의 이론이 3, 4세 즈음에 결정적으로 발달한다고는 하나, 3세 이전 아동과 4

세 이후 아동까지 연구에 포함시켜 발달적 경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이 연구분야에서 의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발달에서 차이가 많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니만큼 특히 3세 이전의 아동은 1년 단위로 나눌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발달 경향을 비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호진(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자아존중·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이동화(1994). 실제와 다른 신념에 대한 학령전 아동의 이해.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이미영(1995). 3, 4세 아동의 심리론에 대한 이해- 두 가지 허위신념과제간의 수행 비교.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이수미(1997). 상위 표상과 심리론: 3, 4세 아동의 속임수 이해.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송미화(1997). 유아·성인 관계방식이 유아의 도덕개념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송인섭(1982). *The dimensionality and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s,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England, New South Wales, Australia.
- 8) 친희영(1993).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Astington, J. W. & Gopnik, A.(1991). Theoretical explanation of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mind.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 7-31.
- 10) Cole, K. & Mitchell, P.(1998). Family background in relation to deceptive ability and understanding of the mind. *Social Development*, 7, 2, 181-197.
- 11) Cummings, E. M. & Davies, P. T.(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73-112.
- 12) Custer, W. L.(1996). A comparison of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contradictory representations in pretense, memory, and belief. *Child Development*, 67, 678-688.
- 13) Dunn, J.(1995). Children as psychologists: The later correlat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other minds. *Cognition and Emotion*, 9, 187-201.
- 14) Dunn, J., Brown, J., & Beardsall, L.(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 15) Dunn, J., Brown, J., Slomkowski, C., Tesla, C., & Youngblade, L.(1991).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s feelings and beliefs: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antecedents. *Child Development*, 62, 1352-1366.
- 16) Dunn, J. & Munn, P.(1985). Becoming a family member: Family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in the second year. *Child Development*, 56, 764-774.
- 17) Estes, D., Wellman, H. M., & Woolley, J. D.(1989). Children's understanding of mental phenomena. In H. W. Reese(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San Diego : Academic Press.
- 18) Fonagy, P., Redfern, S., & Charman, T.(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desire reasoning and a projective measure of attachment security (SA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5, 51-61.
- 19) Hadwin, J. & Perner, J.(1991). Pleas'd and surpris'd : Children's cognitive theory of emot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

- 215-234.
- 20) Jenkins, J. M. & Astington, J. W.(1996). Cognitive factors and family structure associated with theory of mind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2, 1, 70-78.
- 21) Leekam, S.(1993). Children's understanding of mind. In M. Bennett(Ed.), *The child as psychologist : An introduction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cognition*. New York : Harvester Wheatsheaf.
- 22) Lewis, C., Freeman, N., Kyriakidou, C., Maridaki-Kassotaki, K., & Berridge, D.(1996). Social influences on false belief access: Sibling influences or general apprenticeship? *Child Development*, 67, 2930-2947.
- 23) Lillard, A. S. & Flavell, J. H.(1990). Young children's preference for mental state vs. behavioral descriptions of human action. *Child Development*, 61, 731-741.
- 24) Meins, E., Fernyhough, C., Russell, J. & Clark-Carter, D.(1998). Security of attachment as a predictor of symbolic and mentalising abilities: A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7, 1-24.
- 25) Nixon, C. L.(1997). *Family experiences and early social cognition: Links to social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West Virginia University.
- 26) Perner, J., Leekam, S. R., & Wimmer, H.(1987). Three-year-olds' difficulty with false belief : The case for a conceptual defici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 125-137.
- 27) Perner, J., Ruffman, T., & Leekam, S. R.(1994). Theory of mind is contagious: You catch it from your sibs. *Child Development*, 65, 1228-1238.
- 28) Ruffman, T.(1997). *The social determinants of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pril, Washington, D. C.
- 29) Ruffman, T., Perner, J., Naito, M., Parkin, L., & Clements, W.(1998). Older but not younger siblings facilitate false belief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61-174.
- 30) Ruffman, T., Perner, J., & Parkin, L.(1999). How parenting style affects false belief understanding. *Social Development*, 8, 3, 395-411.
- 31) Shantz, C.U.(1983). Social cognition.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Cognitive development. New York: Wiley.
- 32) Vinden, P.(1997). *The effects of parenting style on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pril, Washington, D. C.
- 33) Wimmer, H. & Perner, J.(1983). Belief about beliefs : Representation and constraining function of wrong beliefs in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ception. *Cognition*, 13, 103-128.
- 34) Woolley, J. D.(1995).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fictional versus epistemic mental representations: Imagination and belief. *Child Development*, 66, 1011-1021.
- 35) Youngblade, L. M. & Dunn, J.(1995). Individual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s pretend play with mother and sibling: Links to relationships and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s feelings and beliefs. *Child Development*, 66, 1472-1492.
- 36) Vygotsky, L.(1978). *Mind and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